

## 투데이

# 전남 건강수명 68.34세 전국 꼴찌

&lt;만성질환·장애 없는 나이&gt;

서울 73.89세보다 5세 낮아…광주 70.68세

1000명당 의사 1.6명 의료시설 상대적 열악

전남의 건강 수명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수명은 만성질환이나 장애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높은 고령화 비율과 도시에 비해 열악한 의료 서비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지역별 건강수명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거주자들의 건강 수명은 68.34세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반면, 서울이 73.89세로 가장 높았고, 광주는 70.68세로 1위였고 전남은 69.0세(남성·8위), 72.18세(여성·10위)였다.

연구원은 지역 간 건강 수명 차이가 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료시설의 접근성을 꼽았다. 전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으로, 서울(2.9명)보다 훨씬 적었다.

분석해 추정한 것으로, 건강 수명의 전국 평균은 71.29세였고 대전(72.85), 경기(72.58) 등의 지역은 평균을 웃돌았다. 광주는 70.68세으로 16개 시·도 중 9위였다.

성별로 나눠 분석해도 남성, 여성 모두 전남의 건강 수명은 각각 66.53세, 70.21세로 가장 낮았다. 서울이 72.28세(남성), 75.37세(여성)로 1위였고 광주는 69.0세(남성·8위), 72.18세(여성·10위)였다.

연구원은 지역 간 건강 수명 차이가 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료시설의 접근성을 꼽았다. 전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으로, 서울(2.9명)보다 훨씬 적었다.

## ■ 시도별 건강수명

	건강수명	기대수명	병처례기간
서울	73.89세	80.39세	6.51년
대전	72.85	79.21	6.37
경기	72.58	79.16	6.58
인천	71.10	78.50	7.40
부산	71.08	77.84	6.76
울산	70.99	77.73	6.73
대구	70.97	78.54	7.57
충남	70.96	77.97	7.01
광주	70.68	79.05	8.37
충북	70.34	77.60	7.25
경남	69.74	77.50	7.76
전북	69.72	78.15	8.43
제주	69.58	79.30	9.72
경북	69.56	77.74	8.18
경원	68.95	77.56	8.60
전남	68.34	77.75	9.41

※ 2005년 인구센서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임.

&lt;자료: 보건사회연구원&gt;

경기(79.16), 광주(79.05), 대구(78.54), 인천(78.50), 전북(78.15), 충남(77.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여명 때문으로, 장애여명은 병처례를 하며 살아가는 기간을 말한다.

장애인여명은 제주가 9.72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고 전남(9.41년)과 강원(8.60년), 전북(8.43년) 등도 전국 평균인 7.35년 이상이었다. 반면, 대전(6.37년), 서울(6.51년), 경기(6.58년), 울산(6.73년), 부산(6.76년) 등은 평균을 밟았다.

연구원은 "고령인구가 많을수록 건강수명이 줄어드는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나 요양시설이 많을수록 건강수명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건강수명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앞으로 보다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알림

## 제64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4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최인성 교수의 '알기 쉬운 호흡재활 치료'

광주일보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4일 제64회 테마가 있는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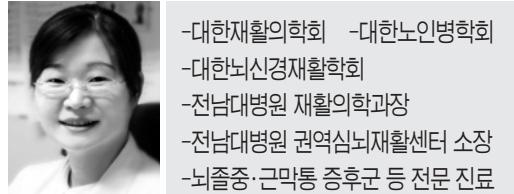
이번 강좌는 최인성 교수의 '알기 쉬운 호흡재활 치료'를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재활의학과 최인성 교수로, 이번 강좌에서는 호흡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 및 사회에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흡재활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의 내용은 오는 27일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 주 제 : '알기 쉬운 호흡재활 치료'

■ 강 사 : 최인성 재활의학과 교수



■ 일 시 : 2월 24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흥보실(062)220-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광주일보 · 전남대병원

## 고병원성 AI 작년 나주·영암서 17건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충남 천안·아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립환경과학원이 2003~2011년 HPAI 발생현황을 분석해 발간한 'HPAI 발생지도'에 따르면 천안은 2003~2004년, 2006년, 2010~2011년 모두 다섯 해에 걸쳐 HPAI가 발생해 전국에서 HPAI가 가장 빈발했다. 아산이 네 해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08년 97건, 2011년 90건이 발생해 9년 동안 총 발생건수 219건의 85%를 차지했다. HPAI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모두 호수나 하천을 끼고 논이 넓게 펼쳐져 있어 철새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특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 사상의학·우황청심원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

보건복지부는 20일 "사상의학과 사암침법, 우황청심원 등 의 약재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상의학은 사람의 체질을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병을 치유하는 체질의학으로, 1894년 이제마가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서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은 우

리나라의 약재를 이용해 중증성 질환이나 정신불안정, 어린이 경증, 뇌출증의 후유증에 사용하는 한의학상의 처방으로, 중국이 자신들의 약재로 만든 우황청심환(牛黃淸心丸)과 대처점에 위치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한국의 한의약과 중국 중의학 간의 사용료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현대삼호重, 서남권 문화수준 올렸다

목포시와 공동 대형공연 잇따라 유치…3년간 27건 후원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오병욱)이 목포시와 공동으로 전남 서남권에 수준 높은 대형 공연을 잇따라 유치해 지역민의 문화활동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011년 9월에 목포시와 공동으로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Next to Normal)'과 모스크바 시티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등 대형 공연 2편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가 유치한 5편가량의 각종 기획공연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목포와 영암 등 전남 서남권은 대도시보다 소득 수준이 낮고 인구가 적어 문화공연의 수익성을 맞출 수 있는 관객 확보가 쉽지 않

은 탓에 대형 공연 유치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대삼호중공업은 30~60%의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적극 후원해 대형 공연 유치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회사의 공연 후원활동은 지역내 문화예술의 든든한 스폰서이다.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임직원 가족 및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이성휴기자 lsh@

## 전남서 촬영 영화·드라마·CF 작년 64편

이주호 교과장관 내일 래광

전남도는 지난해 도내에서 촬영된 영화, 드라마, CF 등 64편에 달해 20여년 만에 소비한 속박·숙식·촬영 진행비, 보조출연 인건비 등 직접적인 사용경비 8억원을 포함해 20억원 안팎으로 전남도는 추산했다.

이 지역이 촬영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전남영상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제작사들에게 숨겨진 경관과 장소를 소개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자율기자 dok2000@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3일 광주를 방문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간담회'에 참석한 뒤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고졸채용 활성화 MOU 체결식'에 참석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철·저·한·독·일·인·의·장·인·정·선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 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큽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요,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티사 보청기 환경)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 조선대학교·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 동강대학교

조선대 관상학: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순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낫놓고 ㄱ자도 모른다"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 시주명리학: 광주시내 평생교육원 중 가장 많은 수강생이 몰려드는 그 비결은? 한번 들으면 인생의 모든 비밀이 눈에 들어온다! 최첨단 영상으로 학습능력을 배가하고 집에서도 다음 카페에서 동영상으로 다시 복습할 수 있다.

## 2012년 상반기 신입생 모집(15주간)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학 주2	2월 28일부터 매주 화요일	14~16시	150,000원	230-7700-2
평생교육원	관상학 이2학	3월 29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1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시주명리 초급	3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1시	12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시주명리 고급	3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20,000원	

- 조선대 등록 - 2월 1일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0-000152(예금주 :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2월 1일부터 - 전화 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령자, 장애자, 생활수급자, 복수과목 면면 신청 등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 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국가공인 (2010. 11. 24 교과부 제2010-1호)

## 한자